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김은혜 옮김, 새잎, 2015.

정재원*

2015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옛 소련 공화국들 중 하나인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장르, 즉 ‘목소리 소설’, 혹은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장르를 개척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녀는 시인이거나 소설가와 같은 문학 작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벨 문학상 사상 최초로 문학 작가가 아닌 저널리스트가 수상했다는 데에 의아해 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들은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 온 이야기를 논픽션의 형태로 쓰면서도 독특한 배치로 마치 생생한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다큐멘터리 산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48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란콥스크에서 벨라루스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군 동원 해제 후 가족 전체가 벨라루스로 이주한 이후 줄곧 벨라루스에서 거주해 왔다. 벨라루스로 돌아온 후 교사 생활을 하게 된 부모의 영향 하에서 그녀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를 쓰고, 학교 신문에 기사를 기고하는 등 재능을 발휘해 왔다. 이후 그녀는 1967년 민스크에 있는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언론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녀는 대학 재학 중에도 다양한 학술 신문 기자로 활동했고, 학생 언론 대회 등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hung, Jaewon,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대학 졸업 후 알렉시예비치는 브레스트 지역 베레사로 이주하여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도 일했다. 그 뒤 일 년 후 민스크의 한 신문사 직원으로 초청되어 일하게 되었고, 이후 한 문학잡지에서 기자로 일하게 되면서 잡지사의 논픽션 파트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단편과 에세이는 물론 일반 보도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글을 써왔는데, 특히 벨라루스의 유명한 작가인 아다모비치가 주도했던 작가 집단의 새로운 장르인, 소위 ‘집단소설’, ‘소설 오라토리오’, ‘소설-증거’, ‘자신들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서사시 합창’ 등으로 불리는 독특한 양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노벨상 수상으로 그녀의 최초의 작품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 그녀의 실제 최초의 작품은 『나는 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조국을 버린 사람들의 독백』이라는 책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반소비에트적이라는 이유로 벨라루스 공산당의 명령으로 전량 폐기된 바 있었고, 그녀는 이 작품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직을 권고받기도 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경우에도 1983년에 작품이 완성되었으나, 영웅적인 소련 여성들을 찬양하기는커녕 그들의 고통과 고뇌만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출판되지 못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1985년에 이르러서야 출판되었고, 이 작품의 출판으로 그녀는 큰 명성을 얻었다.

같은 해 유사한 이유로 출간이 지체된 바 있었던 『마지막 증인들: 천진하지 않은 100가지 이야기』도 출간되었고, 1989년에는 4년 동안의 취재 결과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야기를 다룬 『아연 소년들』이 출간되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 공산당과 군부 등과 같은 보수파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시민들의 항의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1993년 소련 붕괴로 인한 박탈감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죽음에 매료되다』에 이어 1997년에는 10여 년 동안 약 100여 명의 체르노빌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문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가 출간되었다. 그녀의 여러 작품들은 무려 3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수많은 상들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가 전쟁과 폭력, 재앙 등에 대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고단하고 끈질긴 작업들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 뿐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자국의 독재자인 루카셴코에 대해서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의 합병과 동남부에서의 개입 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등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작품들 중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고통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록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 하에서 무려 10여 년에 걸쳐 고민한 흔적이 진하게 드러나는 문제작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환경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재앙의 수습과정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가질 뿐 곧 그 결과에 대해서조차 잊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나 통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체르노빌 사고는 사고 진압 작업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의 사망과 발병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고통을 야기했고, 엄청난 범위에 걸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재앙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작가는 10여 년 동안 직접 발로 뛰어가며 사람들을 만나서 채록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체르노빌 사고의 실체에 우리들로 하여금 접근하게 해 준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 아내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책은 수많은 목소리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도 절묘한 편집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체르노빌 현장이나 체르노빌로 인해 고통 받는 당사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계속된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폭된 남편 곁을 지키다 남편이 이름까지 지어 준 소중한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 그녀는 “딸이 방사선을 모두 끌어 모아 나를 살렸다”며 오열한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연구를 위해 국가가 가져갔다(48쪽).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은 방사선 덩어리가 되어 콘크리트로 밀폐된 채 매장되었다. 게다가 남편의 시신도 국가의 소유라며 가족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46).

체르노빌 현장은 ‘말세와 석기 시대를 갑자기 이어놓은 듯한 환상의 세계’(144)인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피폭당한 당사자나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20세기에 핵을 삼으로 푼’(128)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혹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구조대를 비롯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들은 정부 당국의 무능력과 은폐, 책임 회피 등으로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말았으

며, 그 후유증은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대로 된 대피 안내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위험성을 알지 못 해 뒤늦게야 자신의 집과 마을로부터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완벽하지 못한 경찰과 군인들의 소개 작전 속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대로 남아 있거나 심지어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다. 이들은 두어 달 지나고 나서는 마스크도 안 하고 ‘자두를 따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했다’(315). 범죄자든 타지크로부터 온 난민이든 외부인들이 법을 피해, 사람을 피해 체르노빌로 와서는 혼자 살았다(81).

노인들은 “젊은이, 들어가게 해 주오. 우리 땅이잖소. 우리 집이요”(114)라고 읊소하며 자신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노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피해 도망 다니던 것처럼 경찰과 군인을 피해 다니면서 “1년 형을 선고받더라도 출소하면 다시 여기 올 거요”(77)라고 항의했다. 자발적으로 떠난 또 다른 이들은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며, 주민들을 소개하고 집과 마을을 폐쇄하며 가족들을 사살해야 하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줄카 죽이지 마세요, 착한 강아지예요”(113)라거나 자신의 집에 가서 남기고 온 강아지를 봐 달라고도 부탁했다(157).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방사선 덕에 오히려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 혹은 자조했다. 오렌지도 들어오고 소시지도 세 종류나 파는 등 소련 시대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소비재의 풍요로움에 자조 섞인 말을 늘어놓곤 했다(87).

당과 국가 기관의 그 누구도 당시의 폭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론화하려 하지 않자 직접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 한 물리학자는, 어른과 아이들의 갑상샘을 점검해 보니 무려 정상 수치보다 300배 이상이나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거나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279). 소시지나 달걀을 샀는데 그것들은 식품이 아니라 그냥 방사선 폐기물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곳곳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밀로 하라는 국가의 협박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험은 주민들을 소개하는 업무를 맡은 경찰과 군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직 강제로 주민들을 소개하지 못한 이들은 종종 퇴거를 거부하는 주민들과 함께 보드카가 방사능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척하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보드카를 마시곤 했다(316). 당국도 ‘방사선을 밀어내라고 보드카를

상자채로 나눠주기도 했다’(171).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오염된 현장에서는 ‘보드카 한 병이면 뭐든 살 수 있었다’(146)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다’(147). 주민 소개 작업 이외에도 이들은 닥치는 대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강아지와 고양이, 소 등 동물들을 산채로 매장하고 죽이는 일에도 동원되었고, 이들은 그 일로도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154). 이 구역은 술 취한 경찰이 술 취한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때는 모습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변했다.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소개하던 이들은 당과 국가에 의해 영웅으로 칭송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영웅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신문은 우리의 영웅성에 대해 떠벌였다. 영웅다운 젊은이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콤포스물이라고”(114). 치명적인 사고 앞에서 국가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를 위한 최고의 단계인 영웅주의를 선동한다. 영웅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현장을 판 사람에게는 대열 앞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매장인이라는 명칭과 함께. 물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체르노빌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었기에 체르노빌 원자료를 진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이들을 영웅으로 생각했다(342). 사고 며칠 만에 4호기 위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체르노빌에서 승리했다는 선전이 방송에서 계속되었지만, 그 깃발은 ‘방사선에 의해 활활 타버렸다’(148).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은 종종 외국의 음모이거나 외국에 의해 벌어진 테러라는 선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주민과 군인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신문에서는 ‘적대적 음모와 적들의 반소련적 광란과 선동적 소문을 보낸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202). ‘간첩과 파괴자가 소련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사람들은 그대로 믿곤 했다(191). 때로는 헐박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전시상황이니 어려움에 처한 조국을 무시하는 사람은 배신자”(129)였다. 당국이 통제하는 방송은 ‘멀리 원자로 폭발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배경을 뒤로 하고 수영하고 선댄을 하는 주민들을 비취주며 모든 것이 정상’이며 “서양의 목소리가 공황을 조성하고 사고에 대한 비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252)라며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료들과 정보기관원들은 ‘지금 냉전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거나 사방에 적이 깔렸다’(360)며 오히려 헐박하곤 했다. 영웅주의와 서구음모론은 절묘하게 결합되곤 했다. “홍수가 밀려오더라도 혁명의 발걸음으로! 동무 여러분! 도발에 굴하지 마십시오!”라는 구호가 사람들을 세뇌했다(374).

주목할 부분은 많은 이들이 체르노빌 사태를 전쟁이나 소련 역사에서 커다란 상처로 남은 사건들과 비교하거나 비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련인들이 겪은 끔찍한 기억들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들은 체르노빌 사태를 혁명과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이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과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다시 그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갖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탈린 굴라크, 전쟁, 그리고 지금은 체르노빌까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다”(196), “30년대 대숙청 때 탄압을 당하면서 모든 재산을 빼앗겼어요”(266). “전쟁 때처럼, 침략자가 마을에 불을 지르던 때처럼”(60) “체르노빌은 ‘전쟁위의 전쟁’이었고, 어디에도 구원이 없었다, 땅에도 물에도 하늘에도...”(78).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군인들에게 잡히는 모습은 마치 ‘전쟁 때 같았다’(194).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장 무서운 건 이미 다 겪었다”며 “2차 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살아남았던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고 자위하기도 한다(185). 하지만 ‘레닌그라드 포위전 때처럼 수천 명씩 공동묘지에 묻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197). 한 군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 왔을 때에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체르노빌에서는 정반대로 집에 가면 바로 그때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좌절했다(119).

사고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소련인들도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 수년이 지나도 체르노빌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은 심각했다. 새로이 이주한 곳에서 이들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방사선 아이’라고 부르면서 “방사선 아이와는 같이 앉기 싫다”는 말에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곤 했다. ‘온몸이 구멍 하나 없이 다 막힌 상태로 태어나거나’(134) ‘입이 귀까지 나 있는’ 등의 모습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거나 귀신 취급을 받곤 했다. 아이들은 한 피해자의 딸을 보고 “체르노빌 개똥벌레다! 저 여자에 야광이래”라며 놀려대었다(322). ‘체르노빌레츠는 죽은 후에도 빛이 나서 무덤 위로 빛이 난다(404)’라는 말처럼 이는 피폭된 사람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들 체르노빌레츠들은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히바쿠샤)처럼 자신들도 자신들끼리만 결혼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격리하며 산다(164). “세상은 체르노빌레츠와 다른 모든 사람들 둘로 나뉘어진 것 같았다”(188).

피폭 지역의 할머니들은 외국의 언론 앞에서 “소위 스타가 되었고 연기도 잘 한다. 필요한 장단에 맞춰 눈물도 흘리고 한다”(378). 모두들 측정기를 받

았지만 “세탁한 이불과 먹는 파이에서도 측정기가 소리를 올린다. 그래서 밥을 먹이면서 엄마는 운다”(255).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병실이 아니라, 화장실, 목욕실에서 울었다가 병실에 돌아올 때는 발랄하게 돌아온다.” 그래서 ‘체르노빌의 아이들이 혹시 싸워서 창문이라도 깨면 선생님들이 기뻐한다. 왜냐하면 모두 안색이 젓빛이고, 즐거워하지도, 놀지도, 장난을 치지도 않는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181).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체르노빌 아이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했는데, 이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들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사실이라 믿어 연극 내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336).

슬픔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피폭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의 ‘병리 현상이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서방 병원에 편지를 쓰라’는 한 교수의 조언에 한 아이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실험용 토끼나 개구리가 되어도 괜찮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137).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출동했던 한 구조대원은 집으로 돌아와선 그곳에서 입던 옷을 다 버렸지만 막내 아들이 달라고 졸라 군모만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아들이 매일 쓰고 다녔고 결국 2년 뒤에 아들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116).

그리고 일곱 살 난 딸아이를 잃은 아빠. 병원에 입원한 딸을 재우려는데 딸이 자신의 귀에 대고 “아빠, 나 살고 싶어요. 나 아직 어리잖아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오열했다. 그는 이렇게 절규했다. “내 딸은 체르노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증거가 안 났다고, 수백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68).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으며, 여전히 많은 것이 은폐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들 피해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배척하거나 경원시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체르노빌 돈이나 특혜를 받고 싶냐’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138).

체르노빌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크고 작은 원전 사고는 물론, 인재로 인한 재난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의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재형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로 한정하더라도 체르노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주거지 바로 옆에서 가동 중인 가운데, 어떤 발전소들은 이미 수명이 다 했는데도 가동이 연장되거나 꽤 자주 고장이 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주장한 ‘위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난으로 인한 재앙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이들은 극소수의 고도의 전문가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혹은 진실을 밝힐 경우 닥칠 불이익의 때문에, 정치가나 관료, 그리고 자본과 결탁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인재는 현실화 되곤 하는데, 그로 인한 재앙의 위험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재형 사고들 이후에도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사건의 전말이 은폐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을 포함해서 그러한 재난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로 규정되어 왔다. 게다가 위의 증언들에서 보듯, 이러한 재난 이후 오히려 피해자들 혹은 그 유족들이 특혜를 보려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된다. 재난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은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으로서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려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미래의 연대기는 이렇게 강조한다.

체르노빌 아이들을 위한 구호물자를 받는 자리였다. “그 때 한 남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나눠준 음식과 주스는 그의 아이들을 살릴 수 없었다. 다들 뻔히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가 운 이유는, 알고 보니 그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212)